

III. 북한의 건설수행 과정

1. 건설의 주체

(1) 건설주

건설주는 국가로부터 기본건설계획을 하달받아 시공 주기관, 기업소 등 시공주체에 시공을 위탁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넘겨받아 그 관리운영자가 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만, 자체 건설대상인 경우에는 건설주이면서 동시에 시공주가 된다. 건설주는 건설대상에 관한 설계문건, 대상설비, 건설허가문건 등을 시공에 앞서 확보하여야 하며 건설자금을 적기에 지급할 의무를 지며 시공주로 하여금 건설기간과 품질을 준수하도록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건설주는 해당 건설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그 건설물을 시공주로부터 넘겨받으며 그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2) 시공주

시공주는 건설주의 주문에 의하여 건설물을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사업소를 의미하며, 시공주는 건설주로부터 시공계약에 의하여 건설대상의 시공을 수행하며 완공된 건설물을 건설주에게 넘겨주게 된다. 시공주는 시공계약에 따라 공사를 제때에 시작하고 공사기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며, 설계도면과 기술문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품질을 철저히 보장할 의무와 준공검사에 합격한 건설물만을 건설주에게 넘겨주며 넘겨준 건설물의 품질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보증할 의무를 진다. 또한, 한 개의 건설대상을 둘 이상의 건설사업소가 맡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1시공주와 제2시공주를 정할 수 있다.

(3) 건설기업소

건설시공을 담당하는 기업소이다.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소란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조직 진행하는 경영단위⁴¹⁾로 우리나라의 건설회사의 개념과 유사하다. 건설기업소는

공업기업소, 농업기업소와 함께 생산기업소에 속하며, 군단위 이하에서는 건설사업소로 구성되어있다.

건설기업소 중에서 공공건물을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기업소를 공공건설기업소라고 하는데 이는 기본건설의 부문별 기업소 중의 하나인 셈이다. 북한에서 공공건설은 공공대상부문의 고정재산을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이므로 공공건설기업소는 사회적 시공조직의 기초단위이며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관리 운영된다. 다른 건설기업소와 마찬가지로 기본직장들과 보조직장들, 생산적봉사직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장안에 일정한 수의 작업반을 가진다. 다만, 다른 건설기업소에 비해 규모가 크고, 기술과 장비 수준 그리고 건설기계 이용 수준 등이 높은 편이다.

한편, 북한은 건설의 공업화 정책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건설공업은 선진기계기술로 더욱 장비되었으며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건설기술의 발전은 건설공업 내부에서 전문화를 촉진시켰으며 전문건설기업소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전문건설기업소는 산업건설사업소, 관개건설사업소를 포함하는 부문별전문건설기업소와 기계화사업소, 설비조립사업소 등을 포함하는 기술공정별전문건설기업소가 있다.⁴²⁾

또한 국가계획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건설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업소인 특별건설기업소가 있다. 예를 들면 북한 노동당의 자체적인 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노동당 산하의 제8국, 9국 등은 노동당 자체적인 계획과 재정에 의해 건설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계획과 국가·지방예산과는 관계없는 건설사업은 김부자관련 건물, 병원, 호텔 등 특별한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건설사업이 있다.

2. 건설수행의 주요 과정

북한의 건설사업 수행절차는 건설의 주요과정인 건설사업계획 수립, 설계, 시공, 준공검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북한의 건설사업 수행절차를 '건설법'과 '토지법' 그리고 '도시경영법'

41) 「경제사전(1권)」, 322-3쪽.

42) 「경제사전(1권)」, 37쪽.

등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그림Ⅲ-1>과 같다.

<그림Ⅲ-1 >

북한의 건설사업 수행절차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 건설 총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국토건설총계획 •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 • 지역국토건설총계획 	토지법 제14조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총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건설총계획 • 도시건설총계획 • 부문별건설총계획 	건설법 제10조
<p style="text-align: center;">(새부)건설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위치지정, 건설명세서 확정 • 토지이용 허가 	건설법 제14조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계약 • 책임 설계 / 설계확정 및 승인 	건설법 제17조~제27조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 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허가 • 시공 계약 • 공기 준수 • 감리(검사원, 시공검사 실시) • 건설자재, 건설설비 	건설법 제28조~제36조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물의 준공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물 완공통지 •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 준공검사위원회 심사 • 시설물 하자담보 책임 	건설법 제37조~제43조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물 등록 및 사용개시</p>	도시경영법, 토지법

자료 : 북한 건설법과 토지법, 도시경영법을 참고로 구성.

(1) 계획 단계

1) 건설총계획과 기본건설계획

㉞ 건설총계획

북한의 건설법에 의하면 “건설총계획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대상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망계획(건설법 제10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이 구체적인 건설총계획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획의 분야별, 공간적 범위에 따라 산업건설총계획, 도시건설총계획, 부문별 건설총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총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은 이원화되어 있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설총계획의 승인은 정무원에서, 기타 건설총계획은 국가 건설감독기관에서 승인하도록 규정(동법제13조)하고 있다. 북한의 건설총계획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동법 제11조 1호~12호)되어 있다.

- 혁명 전적지와 혁명사적들을 영원히 보존
- 역사유적, 유물과 천연기념물 보존
- 증가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와 경제발전의 요구를 고려하여 건설방향과 규모 결정
- 공장, 기업소를 원료, 연료원천지와 제품소비지에 가까이 배치
- 합리적인 도시규모의 결정과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의 합리적 배치
- 기존 건물과 시설물의 합리적 이용 및 과학기술의 성과 수용
- 자연부원의 보호와 유용광물 매장지구에 도시와 마을의 배치 금지
- 산 경사지와 지하의 최대한용으로 건설부지 이용의 제고
-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결합하며 입체성과 비반복성, 통일성을 보장
- 조선식 건물 보존구역에는 다른 형식의 건물 배치 금지
- 지하기술시설망 건설을 우선 추진과 합리적인 교통망 배치
- 주민 생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의 조성과 공해의 방지

㉔ 기본건설계획

한편, 북한의 건설법에는 국가계획기관과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산업건설총계획, 도시 건설총계획, 부문별 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순위를 정하고 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동법 제14조) 각각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동시에 건설법을 제외한 다른 문헌에서 건설계획이라는 용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본건설계획은 북한의 경제 각 부문의 생산적 및 비생산적 고정재산의 확대 재생산에 관한 계획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북한의 많은 문헌에서 기본건설이 건설과 같은 의미로 종종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법상의 건설계획의 포괄적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기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사용되는 기본건설의 의미가 단순히 물리적 건설행위 이상의 것을 포함함으로써 기본건설계획이 단순히 '건설'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특히 "고정재산의 확대재생산"에 관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계획의 내용에는 생산시설의 설비 및 대보수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기본건설계획에는 기본투자종합계획, 인민경제부문별투자계획, 조업개시계획, 기본건설대상목록, 건설공업화 계획 등이 포함되며, 건설주별 기본건설계획, 시공주별 기본건설계획 등이 포함된다.⁴³⁾

북한의 기본건설계획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며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중요한 계획"⁴⁴⁾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당장 필요한 건설 뿐만 아니라 몇 해 후에 필요한 건설까지 예측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적 성격을 가진다. 기본건설계획은 건설대상과 건설규모, 건설기간 등을 정확히 결정한 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에 필요한 자재, 설비, 자금, 인력 등의 조달 여부를 고려하여 수립하게 된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조업 개시 후 기업소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원료, 연료, 동력 등의 보장조건을 옹계 따져 맞물려 세운다"⁴⁵⁾는 것으로 기본건설계획이 단순한 건설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 경제 건설의 중요한 역할을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는 점은 전기한 바와 같다.

북한의 문헌은 기본건설계획에 대하여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방향과 정치경제적과업에 기초하여 기본투자의 규모와 분배방향을 정확히 규정하며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⁴⁶⁾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건설계획은 당의 건설

43) 「조선대백과사전(3권)」, 674쪽.

44) 「조선대백과사전(3권)」, 674쪽.

45) 「조선대백과사전(3권)」, 674쪽.

46) 「조선대백과사전(3권)」, 674쪽.

공업화 방침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의 표준화, 부재의 공업화, 시공의 기계화를 구현하도록 하는 건설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인 계획의 세부화가 기본건설계획 수립 및 집행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기본건설계획의 세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2개년련속계획'⁴⁷⁾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이는 건설의 특성인 장기성과 복잡성, 다양성과 관련하여 건설에 필요한 물질적, 기술적 조건들을 사전적으로 계획하여 계획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개년련속계획'의 첫째 과제는 비준된 기술설계에 근거하여 기본건설대상별로 시공공정에 맞게 인력, 자재, 설비들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맞물려 규정하여야 하며, 둘째 해 과제는 다음해 기본건설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선행시켜야 할 물질적, 기술적 조건들을 다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북한의 문헌들은 건설에서 2개년련속계획은 "건설기관, 기업소들이 건설 준비를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할 수 있게 하며 기본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한다"⁴⁸⁾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한 기본건설계획의 세부화를 위하여는 먼저 기본건설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자재와 설비들을 세분대상별로 시공공정에 상응하게 계획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본건설계획은 기본건설대상의 정확한 규정과 이의 세분화, 시공조건과 조업후 생산에 필요한 보장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건설을 정상화하고, 설계를 세부적으로 작성⁴⁹⁾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를 통해 기본건설투자와 자재, 설비, 인력 등 투입요소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대상들을 시공공정별, 현물작업량별로 구체화하고 시공조직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야 하며, 시공조직계획에 의하여 기본건설대상을 세분화하고 자재와 설비, 인력 등을 세분대상별로 시공공정에 맞게 계획화하여 종합화하여야 한다.

47) 매년마다 건설 계획을 세울 때 계획년도인 첫째 건설과제와 계획년도 둘째년도 건설과제를 동시에 예견하는 수립하는 계획형태로써,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의 형태가 결합되어 하나의 계획주기를 이루고 두해의 계획과제를 동시에 전망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매년마다 계획기간이 2년인 계획을 수립하는 셈이기 때문에 처음에 규정된 둘째해 계획은 다음 해에는 실행 계획(현행계획)이 된다(『경제사전(1권)』, 280쪽).

48) 『경제사전(1권)』, 280쪽.

49) 『경제사전(1권)』, 281쪽.

2) 건설기준 계획

건설기준계획은 건설부문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노동 등 투입요소의 기준을 규정하는 계획이다. 북한의 문헌에 의하면, 건설계획의 작성에 있어서 “선진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학적이며 실행가능한 계획을 작성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준계획에서도 건설 사업을 조직하는 단계에 따라 설계기준, 계획기준, 시공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마련한다. 설계기준에는 건설 대상별 또는 기술 공정별 작업량 기준, 인력 및 자재 소비 기준, 설계작성기간 기준 등이, 계획기준에는 인력지출 기준, 자재소비 기준, 기계설비용 기준, 건설기간 기준 등이, 그리고 시공기준에는 건설대상별, 시공공정별 현물 작업량 기준, 인력 및 물자소비 기준, 시공기간 기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건설기준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하여 기 건설된 건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협의를 거쳐 선진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문헌들은 건설기준 계획의 정확한 작성이 실제 건설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며, 인력과 자재를 절약할 수 있고, 건설의 속도와 품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기본건설대상 계획

기본건설대상 계획은 당해 계획년도에 새로이 건설하여야 하는 건설대상물과 전년도부터 계속되는 건설대상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계획으로 북한의 건설계획은 물론 경제계획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건설부문은 기본건설대상 계획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건설하여야 할 대상물과 그에 대한 기본투자액, 건설조립 작업액, 조업개시 능력과 건설기간, 대상건설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 소요량 등이 규정될 뿐아니라 기본건설투자 계획, 조업개시 계획 등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북한에서 기본건설대상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년도에 건설하게 될 건설대상물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건설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순위결정은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중요건설대상을 최우선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등 몇 가지 일관된 기준에 의한다. 이러한 결정 원칙⁵⁰⁾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당과 수령이 제시한 정치경제적 중심과업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둘째, 기존의 생산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설비를 설치하고, 기존건물에 연결하여 새 건물을 지으며 현존 고정재산의 확장과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충적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셋째, 원료 생산지와 소비지에 가깝고 경영활동에 유리한 지역에 건설대상을 입지시키도록하며, 건설대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건설대상에 투자를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기본건설대상목록

북한의 기본건설대상목록은 북한내의 고정 재산의 확대 재생산 규모를 대상별로 규정하는 일종의 계획지표로써, 당이 제시하는 기본건설투자 방향과 규모에 따라 건설대상별로 기본투자 규모와 조건 등을 규정⁵¹⁾하는 것이다. 기본건설대상목록에는 개별적 건설대상의 명칭, 총투자액과 건설조립 작업액, 설계능력, 건설기간, 생산능력, 조업개시일, 시공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건설대상목록은 기본건설계획에서 가장 중심적인 계획지표로서 기본건설자금공급을 위한 기본문건으로 활용되는 데 대상목록에 규정된 총투자액, 건설 및 조립작업액, 조업개시능력 및 건설가격등은 종합계획작성과 물자, 인력의 계산의 기초가 된다.

5) 건설명시

북한의 건설명시란 건설하게될 건축물의 구체적인 위치를 규정하여 주는 일종의 배치계획도와 같은 것⁵²⁾으로 국가건설감독기관이 건설위치지정서와 함께 건설명시서를 작성하여 건설주기관, 기업소 등에 전달한다. 앞에서 언급한 토지법에 의한 토지이용 허가를 건설주체(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얻어서 건설명시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0) 「경제사전(1권)」, 281쪽.

51) 「조선대백과사전(3권)」, 674쪽.

52) 「조선대백과사전(1권)」, 576쪽.

계획되고 설계된 건설물의 위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건설명시측량에 의하여 건설명시도를 작성하게 되는 데,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건설지역단위 또는 한 개 구역단위(축척 1 : 500 - 1 : 1,000)로 작성되고, 건설물의 길이와 너비, 명시점(모서리점과 축), 도로교차점, 방향변환점 등의 공간지표(x, y, z)들과 측량기준점, 기준선들의 위치, 그로부터 명시점까지의 거리(s), 방향각(α), 사이각(β) 등이 표시되는 지적도와 배치도 등이 통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변건물 및 각종 시설물들의 위치와 건설대상과의 상호관계가 반영된다.

건설명시서 작성을 위한 명시 측량을 하기 전에 건설명시도면에 근거하여 명시약도를 작성하는 데, 여기에는 명시 측량에 필요한 요소들의 값을 써넣고 측량기준점과 기준선의 위치를 밝히고, 건설대상의 위치안내도와 명시측량의 정확성을 검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써넣는다. 명시약도는 명시측량의 기초도면이면서 법적문건으로 시공주와 측량자측이 각각 보관한다. 북한의 문헌에 따르면 건설명시 측량은 명시점들이 요구하는 정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측량기기와 자를 이용하고 측량기준점과 기준선으로는 이미 건설된 건설물들의 모서리점들과 도로축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측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⁵³⁾

(2) 설계 단계

1) 건설 설계 사업 계획

북한에서는 건설물의 설계를 위하여서도 사업 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설계 단계 역시 건설설계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건설설계사업계획이란, 건설설계의 대상과 규모 및 시기를 규정하는 계획으로써 기본건설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획이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설계사업비계획, 대상설계계획, 기술과제계획, 측량 및 지질조사계획, 전망설계계획, 건설기준계획 등을 포함⁵⁴⁾한다.

설계사업비 계획은 건설설계작성과 관련한 모든 지출을 금액으로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설계작성비, 설계문헌구입비, 사공지도비 등을 포함하는 자금 계획의 일종이다. 대상설계계획은 개별적인 건설대상에 대한 기술설계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비준된 설계과제에 기초하여 건설대상별 및 세부대상별로 작성한다. 이 때, 같은 기능을 가진 건설대상에

53) 『조선대백과사전(1권)』, 576쪽.

54) 『조선대백과사전(1권)』, 528쪽.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설계작성에 관하여는 표준설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데, 표준설계대상 계획과 부문요소별 표준화 및 규격화 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기술과제계획은 설계작성과정에서 생산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획으로 기술과제(생산설비등)대상과 그 능력, 기술과제 작성비, 기술과제 작성기일과 작성기관이 규정되어야 한다. 전망설계계획은 도시 및 농촌부락 총계획, 산업지구 및 공장, 기업소 건설을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설계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농촌부락 총계획, 산업지구 및 공장, 기업소 총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⁵⁵⁾한다. 건설기준계획은 건설에 적용할 여러 가지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기준, 설계예산기준, 시공기준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2) 건설 설계의 정의와 종류

북한에서의 건설 설계는 “건설물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 경제적 내용을 표시한 종합적인 기술문건 또는 그것을 작성하는 일”⁵⁶⁾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의 종류에는 총계획 설계, 건설물 설계, 그리고 시공조직 설계 등이 있으며, 동일 설계의 활용 측면에 따라, 대상 설계, 반복적용 설계, 표준 설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북한에서의 건설설계 작성의 기본 원칙으로는 건설물의 편리성, 보건위생성, 그리고 기술경제적 합리성 등을 추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북한건설정책의 기본 방침의 하나인 건설의 공업화를 위해서 설계를 표준화, 규격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총계획설계란 건설대상물의 기능에 따라 그 건설대상의 총체적인 계획을 밝힌 설계를 의미하는 것에 비하여 개별적인 건설물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설계는 건설물 설계이다. 건설물 설계는 기술공정설계(건물 안의 생산 설비와 공정 등에 관한 설계), 건축설계(시설물설계; 건물과 구조물 자체의 모양, 규모, 능력, 구성, 마감 등에 관한 설계), 구조설계(건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힘반이구조, 자름면치수, 재료 등을 과학기술적 계산에 의해 규정한 설계), 난방환기 및 상하수도 설계(위생공학적 대책에 관한 설계), 전기 및 체신시설 설계, 녹화설계, 예산설계(건설자금을 계산한 설계), 시공조직설계(건설 방법에 관한 설계) 등으로 구성⁵⁷⁾된다.

55) 「조선대백과사전(1권)」, 568쪽.

56) 「조선대백과사전(1권)」, 568쪽.

또한, 한 번 설계된 설계의 적용횟수에 따라 개별적 건설대상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만든 설계로 반복성이 적은 특수한 대상에 적용되는 설계인 대상설계,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상에 반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과 형태를 통일시켜 만든 설계인 반복적용설계, 그리고 매우 많이 반복되는 건설대상을 위하여 작성하고 국가적으로 평가 등록하며 보급일반화하기 위한 설계인 표준설계⁵⁸⁾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3) 건설설계 과정

북한의 건설설계에서 특이한 점은 산업건설의 설계인 경우 건설물의 기술 수준 즉 건설물이 구비해야할 생산용 설비와 기계류들의 종류, 형태 및 특성, 기술 공정, 생산 시설의 기계화와 자동화 수준이 설계 내용에 포함되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전기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기본건설 중 산업건설이란 단순히 건축물의 건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시설의 확대재생산을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북한의 관점에서는 사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설물의 기술수준 이외에, 일반적인 건축설계와 같이 건설물의 규모(생산규모, 수용규모, 저장규모)와 형태, 기술경제적, 미학적, 생활편리상 및 위생학적 조건들로 표현되는 건설물의 품질 등에 관한 내용이 설계에 포함되며, 그에 따른 건설조립 작업량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 자재, 대상설비 등의 물량과 이 물량을 화폐로 표시한 예산가격 등이 포함된다. 북한에서의 설계문건으로는 건설도면, 예산서, 설명서 등으로 구성⁵⁹⁾된다.

건설설계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설계과제 단계로써, 설계방향을 확정하는 것으로 해당

57) 「조선대백과사전(1권)」, 568쪽.

58) 북한의 문헌에서는 표준설계란 “같은 기능과 구조형식을 가진 건설대상들에 거둬 쓸 수 있도록 건설물의 능력과 형태, 구조요소 및 구조부재의 형과 치수를 통일시켜 작성한 설계”라고 정의되어있다. 이는 주로 주택 및 학교, 병원, 탁아소, 영화관 등 공공건물과 일부 산업건물, 지방 산업공장과 같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부대건물들에 널리 적용된다. 표준설계는 전기한 대상설계와는 달리 개별적 건설대상의 구체적인 건설조건과 관계없이 일반적 조건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별적 건설대상에 적용할 때에는 그의 일정한 부분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해당 건설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표준설계에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요소로는 건설재료, 마감공사, 기초공사, 일부 생산기술공정, 난방설비, 외부기술시설망 등이 포함되며, 표준설계는 진문화된 표준설계연구소들에서 작성된다(「경제사전(2권)」, 703-4쪽).

59) 「경제사전(2권)」, 198-9쪽.

건설대상의 합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만든 설계로써 우리나라의 기본 설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종합적설명도, 기술경제지표, 건설현장 총계획도, 동력망(전력공급과 전기설비, 열공급, 가스공급 및 약전시설 등) 체계, 건물과 시설물들의 평면, 입면, 단면 등 기본적인 설계도면, 급수 및 배수, 난방, 환기온수 공급체계, 종합재정예산서, 기타 특수한 대책들이 포함된다.⁶⁰⁾ 두 번째 단계인 기술과제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건설시공과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설부채와 세부요소, 설비의 제작과 조립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으로 설계를 작성한다. 다만, 규모가 작거나 경험이 많거나 또는 표준설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설계과제 단계를 생략하기도 한다.

북한의 건설도면은 “건설물과 그 요소들을 약속된 기호와 부호, 투영법(주로 정투영법)으로 평면에 표시하고 크기와 수량을 표시하는 숫자, 필요한 글자를 써넣은 도면”⁶¹⁾이라고 정의 되어 있으며, 앞의 설계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면작성단계에 따라 과제설계도면과 기술설계도면으로 구분된다. 과제설계도면은 기술과제서에 맞게 대상의 대략적인 능력과 기술경제적 조건들을 반영하는 도면을 의미하며, 기술설계도면은 시공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도면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각각 전문 분야별로 건축도면, 구조도면, 위생설비도면, 전기설비도면 등으로 이루어진다.

건축도면은 일반적인 경우처럼 평면계획적인 내용과 건축구조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총배치도, 평면도, 입면도(정면도, 측면도, 후면도), 자름면도, 부문상세도 등으로 구성되어지고, 구조도면은 구조역학에 따라 구조요소들의 평면도, 자름면도, 상세도, 부재도면, 규격부재목록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위생설비·전기설비도면 등은 일반적인 설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건설설계의 과정을 행정체계적 과정에서 살펴보면, 우선 설계를 위한 처음 단계는 건설주문기관이 작성한 기술과제서가 비준되어 설계기관에 전달되면, 설계기관은 먼저 과제설계도면을 작성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각 층의 평면도, 구조, 입면 구성 등이 확정되며 규격부채와 규격설비의 이용가능성, 건설대지와 기술시설망의 합리적 이용대책 등을 확정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설계설명서, 기술전문별도면, 계산서, 예산서, 기술과제서서본, 지

60) 「경제사전(2권)」, 199쪽.

61) 「경제사전(2권)」, 199쪽.

질조사문건, 건설명사, 각종합의서 등과 제책도면, 모형, 사진자료 등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과제설계가 완성·비준되면 이에 기초하여 기술설계를 실시한다. 전기한 바와 같이 표준 설계를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과제설계를 하지않고 기술과제에 따라 직접 기술설계를 할 수 도 있다. 기술설계에는 해당 건설물이 완공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 경제적 문제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건설시공 단계

1) 기본건설 시공 계약

북한에서의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의 주어진 대상의 특성에 따라 작성된 시공조직설계에 의하여 직영식 또는 수탁식(위탁식)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직영식 건설방법은 건설주가 되는 기업소들이 직접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수탁식(위탁식) 건설방법은 전문건설기관이 건설주와 시공계약을 맺고 건설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수행방법이다.

북한에서 건설시공에 대한 계약은 건설주와 시공주 사이에서 건물이나 시설물을 짓는 것과 같은 기본건설의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국가의 기본건설 계획에 기초하여 맺어지는 계획적 계약의 한 형태로 1956년부터 도입되었다. 단, 이러한 계약은 사회주의적 기업소들이 고정재산의 건설 및 복구공사의 수행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직영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공계약에 의하여 한편 당사자인 시공주는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제시된 건설을 완공하여 그 결과를 상대방 당사자인 건설주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상대방은 정해진 건설 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넘겨받고 건설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향후 건설물이 완성된 후 그 건설물을 맡아 관리할 기관이 주로 건설주가 되며, 관리할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해당 국가행정기관이 건설주가 된다. 계약은 계획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건설대상별로 체결하게 되며, 완공된 건설물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넘겨주고 받을 때에 계약의 효과는 소멸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의 당사자들은 건설 대상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완공날자와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하며 기본건설대상목록과 설계예산문건이 작성되어야만 계약이 체결

될 수 있다.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부지와 설계를 확보해 주어야 하며 건설부지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은 건설주의 위탁에 의하여 시공주가 할 수 있다.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 날짜와 조업기일을 지키고 설계와 기술문건대로 공사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 받을 수 있으며 시공주는 건설물을 넘겨준 때로부터 1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고쳐 줄 의무를 진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건설에서 계획적 규율을 강화하며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의 질을 높이는 데서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본건설공사 시공계약은 총시공계약과 연간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총시공계약은 해당 건설공사의 전체규모에 대하여 전 공사기간에 걸쳐 건설주와 시공주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연간계약은 총시공계약을 기초로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단, 1년미만의 공사기일이 요구되는 공사일 경우에는 총시공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연간계약만 체결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하도급 계약의 의미를 가지는 재시공계약이 있다. 재시공계약은 공사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특수한 시공을 요하는 전문적 기본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특수공사를 맡긴 시공주와 그것을 맡은 다른 전문적 건설기관인 제2시공주간에 총시공기간의 범위안에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특수공사(전기, 수도건설 및 난방장치의 설치 등)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제2시공주가 아니라 원래의 제1시공주가 된다. 이는 준공된 공사 또는 부분적으로 완공된 공사의 결과를 건설주에게 넘겨줄 책임을 전적으로 제1시공주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 계약에 의한 계약상 의무는 설계에 맞게 정확히 진행된 공사의 결과가 당사자들에 의하여 인수·인도되고 해당공사에 든 공사비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⁶²⁾

2) 건설 공사

북한에서의 건설공사란 “건설물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작업의 일체”⁶³⁾를 의미하며, 일

62) 『경제사전(1권)』, 281-2쪽.

63) 『조선대백과사전(1권)』, 519쪽.

반적으로 건축공사인 경우는 흙공사, 기초공사, 축조공사, 조립공사, 지붕공사, 바닥공사, 건구공사, 마감공사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도로, 철도, 다리, 지하구조물과 관개, 항만 및 기타 기술구조물들도 자기 특성에 맞는 개개의 건설공사를 거쳐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건설기간이란 “건설대상에 대한 작업이 시작된 때로부터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⁶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준비작업⁶⁵⁾, 기본작업, 준공검사기간 등이 포함된다. 준비작업기간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가설물을 짓고 건설기계설비를 설치하는 등 기본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기본작업기간은 건설물의 기초를 파고 벽체를 세우며 지붕을 씌우고 마감공사를 진행하여 건설물을 완공하게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준공검사기간은 건물의 등록을 위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건설기간의 종점은 준공검사가 종료된 시점이다.

3) 기본건설의 수행(조직)형태

북한에서의 건설공사의 수행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탁식건설과 직영식건설로 구분된다. 직영식 건설방법은 기업소들이 자체적으로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설이나 대보수, 그리고 일부 특수한 건설의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기업소내에 자체의 건설 직장이 설치되고 그 직장이 자기 기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건설시공을 직접 맡아서 수행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고 건설이 끝나면 건설직장은 해체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건설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위탁건설방식에 비해 건설기계, 건설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건설경험이나 기술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우며, 건설의 공업화를 발전시키기 어렵고, 전문건설기관이 확대발전되지 못하는 등 건설부문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제한이 많은 것으로 북한의 문헌들에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위탁식건설방법은 전문건설 기관이 건설주와의 시공 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전문건설기업소 자체의 선진기술장비와 우수한 건설인력들로 구성된 전문건

64) 『조선대백과사전(3권)』, 521쪽.

65) 건설대지 상의 부차적인 건물 및 구축물의 철거, 임시적구축물의 건설, 건설기계장치의 조립 등이 준비작업에 속한다(『경제사전(1권)』, 38쪽).

설기관이 건설을 수행하기 때문에 직영건설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⁶⁶⁾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공업적 건설방법을 널리 받아들일 수 있음
- 건설기술인력을 장기계획(전망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고, 노동자들을 전문직종에 종사하게하여 숙련된 기능공으로 양성할 수 있음
- 건설사업 수행의 전문화는 물론 전문적인 지도를 강화할 수 있음
- 시공주와 건설주사이의 시공계약에 기초하여 서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건설기간의 단축과 건설물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이와 같이 전문화된 건설기업소의 육성·발전을 통한 위탁식건설방법은 지나치게 분산되어있는 건설기업소들을 통합하고 특히 공업화건설을 위한 전문건설기관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의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건설부문 정책의 기본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위탁식 건설방법은 건설의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건설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미약하던 전후 복구시기를 지나, 5개년계획기간과 7개년 계획기간에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5개년계획기간동안 대규모건설기관의 강화발전예 따라 위탁식건설방법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7개년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설대상들의 건설이 요구됨에 따라 건설사업의 효율적이며 과학적인 수행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63년 건설관리체계를 수정하고 전문건설기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바 이 조치에 의해 전문건설기관들이 통합 확대되고 기본건설의 대부분을 전문건설기관에 의한 위탁건설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⁶⁷⁾

(4) 건설자재부문

북한에서는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자재의 생산과 공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중공업의 한 부문으로 전제공업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전제공업의 발전은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자재의 절약과 효과적인 이용, 생산성의 향상 등을 통하여 건설비를 하락시켜 경제적 효과성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6) 「경제사전(1권)」, 286-7쪽.

67) 「경제사전(1권)」, 286쪽.

1) 건설자재의 종류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설자재의 종류⁶⁸⁾는 다음과 같다.

① 세멘트 및 세멘트로 만든 자재

세멘트, 콘크리트와 철근콘크리트 및 그것으로 된 조립부재, 몰탈, 인조석제품, 돌솜세멘트작품, 가벼운 콘크리트와 그 제품등

② 씨리카트

가벼운 씨리카트, 무거운 씨리카트, 씨리카트세멘트 및 그 제품

③ 압연강재를 비롯한 금속건재

형강, 철판, 강관, 아연도금판, 범랑철기, 주철관 및 주철품, 금속건구, 합금강 및 경금속제품

④ 나무 및 목질건재

통나무, 각재, 판재, 쪽널, 합판, 못삭판, 나무섬유판 등

⑤ 합성수지건재를 비롯한 화학건재

합성수지로 된 판이나 판 또는 통구리재료, 유기유리, 칠감, 메움재, 아스팔트나 타르 등의 력청질재료 등

⑥ 요업건재

벽돌 및 벽돌 블록, 기와, 오지판, 위생자기, 타일 등

⑦ 유리건재

판유리, 배근유리, 유리블록, 형타유리, 유리관, 유리타일, 거품유리, 유리솜 등

⑧ 돌건재

천연돌제품, 콘크리트용 자갈과 모래, 가벼운 골재, 돌판 등

또한 건설자재는 용도에 따라 힘받이재료, 지붕재료, 바닥재료, 걸붙임재료, 건축설비재료, 건구재료, 붙막이재료, 방수재료, 방음재료, 방사선막이재료, 도로포장재료 등으로 구분된다.

68) 「조선대백과사전(1권)」, 531쪽.

2) 자재공급

북한에서 건설자재의 공급은 “건설계획실행을 위하여 건설활동에 필요한 생산수단(건설 기계, 원자재)들의 분배와 공급 및 그 소비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조직 사업”⁶⁹⁾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설자재는 경제 전체적인 범위에서나 부문 및 기업소적인 범위에서 계획에 의해 공급된다.

이러한 북한의 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은 자재공급계획과 협동생산계획에 따라 국가와 기업소들의 상업적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북한의 문헌은 상업적 거래에 대하여 “사회적 노동의 낭비를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수익성과 국가축적을 늘리기 위한 것”⁷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건설자재의 공급은 경제 전반적으로는 자재공급위원회, 부문적으로는 각 성 및 관리국들의 자재부서와 자재상사, 기업소 차원의 자재공급부와 반제품 중앙창고에 의해 이루어 진다. 북한은 특히 ‘대안에서 이룩된 새로운 자재공급체계(우에서 아래에 책임적으로 자재를 내려다주는 공급체계)’를 사회주의자재공급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고 선진적인 자재공급체계라고 하고 있다.

㉔ 자재공급계약

자재공급계약은 “건설자재의 종류, 수량, 기간, 인도방식 등에 대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체결되는 계약”⁷¹⁾으로 이는 국가계획에 기초하여 체결되며 이를 통해 부문 또는 기업소들간에 계획적 연관이 이루어 진다. 이러한 자재공급계약은 북한의 경제계약⁷²⁾의 기본구성부분을 이룬다.

자재공급계약에는 종합계약과 개별계약이 있다. 종합계약은 공급자와 수요자인 성, 관리국, 중앙관리 및 도경제기관의 해당 관리부서 간에 맺어지는 포괄적계약이다. 종합계약의 내용⁷³⁾에는 1) 생산기업소명 2) 품명 3) 규격 4) 수요자 기업소명 5) 월별, 분기별 인수 및

69) 「경제사전(2권)」, 423쪽.

70) 「경제사전(2권)」, 423쪽.

71) 「경제사전(2권)」, 424쪽.

72) 북한에서의 경제계약은 기본건설시공계약, 자재공급계약, 화물수송계약 등이 있다(「경제사전(2권)」, 73쪽).

공급 수량 6) 포장조건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이다.

개별계약은 종합계약에 근거하여 계약을 직접 집행하는 자재상사 또는 기업소와 같은 당사자들 상호간에 맺어지는 보다 구체화된 계약으로 새로운 자재공급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기업소간에 체결되던 개별계약을 자재상사들이 체결하게 되었다. 개별계약의 내용⁷⁴⁾을 보면 1) 제품의 수량과 공급기간 2) 제품의 품명, 가격, 규격 3) 기술조건 등이다. 종합계약과 개별계약외에 국가계획위원회가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이것을 직접 인도인수하는 경제기관 상호간에 체결하는 계약이 있다. 북한의 문헌에서는 자재공급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재공급계약을 잘 지키는 것은 기업소들에서 건설시공을 정상화하고 건설의 질을 높게 하며 독립채산제를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생산물의 계획적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민경제를 계획적이며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⁷⁵⁾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자재공급은 주로 자재상사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자재상사는 기업소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을 위해 상사들간의 계약을 기초로 상품거래형식으로 자재공급 사업을 진행한다. 자재공급을 정확히 하는 것은 북한의 전체적인 경제계획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건설시공의 정상화를 보장하며 계획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⁷⁶⁾

㉠ 자재공급의 기본원칙

북한의 자재공급의 기본원칙⁷⁷⁾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획적인 자재공급이다. 이것은 건설에 들어가기전에 자재들을 건설공사의 기술공정상 수요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건설자재공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설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할 수 없다.

둘째로 종합적인 자재의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다양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자재와 설비가 요구되므로 이것들의 종합적인

73) 「경제사전(2권)」, 424쪽.

74) 「경제사전(2권)」, 424쪽.

75) 「경제사전(2권)」, 424쪽.

76) 「경제사전(2권)」, 424쪽.

77) 「경제사전(2권)」, 424쪽.

보장 없이는 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국가유일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의 실현이다. 이를 “우에서 아래에 자재를 내려다 주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자재를 분배공급하며 아래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자들이 생산에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자재공급의 가장 중요한 요구임을 의미한다. 이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자재를 생산에 철저히 앞세우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제때에 기동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넷째로 합리적인 자재의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건설공사의 공정과 설계에 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건설기간과 절을 보장하는 자재의 합리적 사용을 의미한다.

3) 자재공급 체계

건설자재공급체계는 자재의 정확한 공급을 위하여 전문적인 자재공급 기관, 부서들이 유 일적인 체계로 조직된다. 경제 전반적으로는 자재공급위원회, 부문적으로는 각성 및 관리 국들의 자재부서와 자재상사, 기업소적으로는 자재공급부와 반제품 중앙창고들이 이를 담당수행한다.

이렇게 조직된 자재공급체계는 북한 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재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소, 공장 등에 계획적으로 분배하고 그 사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자재공급체계를 통하여 생산수단의 계획적분배를 실현하고 그 소비를 통제 함으로써 생산과정의 정상적 조건을 보장하며 생산수단이용의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⁷⁸⁾

북한의 자재공급체계의 전형적인 형태는 대안의 사업체계에서의 자재공급체계이다. 이러한 대안의 자재공급체계에 대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어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맞게 자재공급사업을 개선 완성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길을 열어 준 새로운 자재공급체계를 확립하여 주시었다⁷⁹⁾’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지난 시기 자재공급사업을 한강 종이전표에 의한 배정사업으로 대체하던 관료주의적방법을 철저히 없앴 책임성과 계획성에 기초한 새로운 자재공급체계⁸⁰⁾’라고 하고 있다.

78) 「경제사전(2권)」, 424쪽.

79) 「백과전서(4권)」, 187쪽.

80) 「경제사전(2권)」, 425쪽.

북한이 주장하는 대안의 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⁸¹⁾은 먼저 자재공급에서 중앙집권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동시에 생산현장의 요구에 맞게 자재를 책임적으로 내려다줌으로써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적 지도와 생산활동을 정확히 보장하며 생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데 있다.

둘째로 생산수단의 계획적공급을 철저히 강화하는 기초 위에 자재유통의 상업적형태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생산수단의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공급과 분배를 완성한다.

셋째로 협동생산조직을 잘하며 자재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자재의 합리적이며 절약적소비를 실현하게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대안의 자재공급체계는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에 맞게 생산수단의 계획적 공급을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⁸²⁾라고 하고 있다.

(5) 건설인력

북한에서 건설인력의 수요와 공급은 국가계획에 기초한 국가기관의 배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국가의 담당기관이 기업소별 인력 수요와 학교별 노동력 공급 가능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국영 건설기업소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노동력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종신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개별 건설기업소는 국가의 노동 인사기관을 통해 할당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한편 이들을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개별 노동자들도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직장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영 건설기업소의 노동자들은 취업과 더불어 종신고용이 보장되고 주택, 의료 서비스 등 각종 복지제도, 자녀 교육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직의 동기가 매우 낮다. 그리고 화폐적 임금보다는 주택과 같은 비화폐적인 소득이 더 많은데, 이는 개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다른 부문으로의 이직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계획당국에 의한 인력의 공급은 근로자들에게 높은 취업률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지만 인력의 유동성을 극도로 약화시켜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영기업과 같은 단위들은 항상 과잉고용이라는 노동고용의 비효율 상태에

81) 「백과전서(4권)」, 187쪽.

82) 「경제사전(2권)」, 426쪽.

직면해 있다.

북한의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건설인력은 공급과잉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침체로 인해 건설공사의 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공사 추진 시 ‘돌격대’ 등의 이름으로 일반 인력을 건설공사에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와 공급을 정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건설기술자의 경우도 전체적인 숫자는 부족하지만 건설실적의 부진으로 실제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건설기술자격체제는 총 9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계분야의 예를 들어보면, 설계기술자에는 설계원과 준설계원이 있으며, 설계원은 1급에서 5급, 준설계원은 1급에서 4급까지 9등급으로 구분된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설계원이 될 수 없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졸업 1년후 시험에 합격하면 5급설계원이 된다. 또한 3년에 한 번씩 승급시험의 자격이 주어지고 시험과목은 전공과목과 관련과목, 외국어 등이다. 설계분야에서 가장 높은 급수인 설계원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북한 전체에 20여명 정도 있다. 다른 분야도 설계분야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⁸³⁾

북한에서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노동보수 계획에 따라서 분배·관리된다. 이러한 노동보수 계획은 보수의 형태에 따라 생활비 계획, 장려금 계획, 상급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된다. 생활비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계획기간 내 지출되는 생활비의 총규모를 미리 규정하는 총생활비 계획과 노동자·사무원 1인당 평균지출 규모를 규정하는 평균 생활비 계획이 있다. 장려금 계획은 ‘국가기준 노동정량’보다 계획연도의 ‘노동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에 지불되는 노동 임금 계획이다. 이 계획은 장려금 계산 노력수와 기준 평균생활비, 계획연도의 노동정량 제고율, 장려금을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또한 상급계획은 노동정량을 높일 경우에 대비하여 기본 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더 지불하는 근로자의 노동의욕 제고 목적의 임금계획이다.

북한 건설부분의 임금구조는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차등임금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업종별·지역별 임금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건설분야의 평균임금이 농업, 상업, 유통업, 소비재 생산 부문, 문화, 공공행정, 교육 등의 비생산적 서비스 부문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83) 이 내용은 귀순자와의 면담결과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금격차가 별로 크지 않고 기업의 성과와 개별 노동자들의 공헌도가 상호 연계성을 지니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임금수준의 정체와 평균주의적인 북한 노동자의 임금구조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비생산적 노동윤리를 갖게 하고 낮은 노동생산성을 야기시켜 북한경제의 침체를 부채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⁸⁴⁾

(6) 건설부지 및 건설 현장 관리

1) 건설부지

북한에서의 건설부지란 “건물, 구조물, 기술시설물들의 터와 그것의 경영상 필요로 하여 영역계선이 그어지는 땅”⁸⁵⁾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설부지는 그 안에 건설되는 대상이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건설대지와 구별된다.

건설부지의 크기는 건물, 구조물, 기술시설물의 용도와 규모, 평면형태, 입지조건, 배치방법, 관리운영상 요구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건설부지의 이용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물, 구조물, 기술시설물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로서 부지이용결수 또는 그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2) 건설현장

㉞ 건설장

건설장은 건설물의 건설에 필요한 일정한 공사구역으로 건설물을 조립·축조하는 작업구역, 준비 및 보조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역, 건설기계설비를 비롯하여 전기, 물, 압축공기 공급망의 배치구역, 여러 가지 가설물, 부재, 자재창고 등의 배치구역, 사람과 운반수단들의 활동을 위한 통로구역 등이 있다.⁸⁶⁾ 즉, 우리나라의 건설현장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84) 「북한이해」, 129-30쪽.

85) 「조선대백과사전(1권)」, 527쪽.

86) 「조선대백과사전(1권)」, 530쪽.

있다. 이러한 건설장의 이용과 통제는 건설현장조직도에 의해 이루어 진다.

㉑ 건설현장의 관리

건설현장의 관리는 건설장의 이용방법을 정해 주는 시공조직설계의 한 부분인 건설현장 조직도에 따라 이루어 진다. 건설현장조직도에는 건설장의 현황, 건설할 건설물들의 평면과 규모·위치, 시공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물들, 건설기계설비·시공수단들의 배치상태, 건설장의 한계범위 등이 표시된다.⁸⁷⁾

건설현장조직도는 총건설현장조직도, 대상건설현장조직도, 시공공정조직도로 나누어진다. 먼저 총건설현장조직도⁸⁸⁾는 여러개의 다양한 건설물들이 동시에 포함되는 산업건설, 도시 계획건설, 농촌마을건설 등 비교적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현장조직도로 보통 1:500 ~ 1:2,000의 축척으로 작성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대상건설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시공수단과 장비, 가설물들의 배치상태를 표시하고 건설할 건설물들의 배치와 건설순서가 표시된다.

대상건설현장조직도⁸⁹⁾는 하나의 건설대상에 대한 건설현장조직도로 보통 1:200 ~ 1:500의 축척으로 작성하며 총건설현장조직도의 한 부분이며 각 건설대상별로 구체화 한 것이다. 총건설현장조직도에서 규정한 방향과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해당 건설대상에 필요한 가설물과 시공수단의 배치상태, 대상건설물의 형태와 규모, 위치등이 표시된다.

시공공정조직도⁹⁰⁾는 각각의 시공공정 또는 인접한 몇 개의 시공공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도면에 작성한 현장조직도로 보통 1:200 ~ 1:500의 축척으로 작성된다. 해당 시공공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시공수단들과 가설물들의 배치상태, 설정한 시공순서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북한에서도 이와 같이 건설현장의 합리적인 조직과 관리를 통해 건설공사에 있어서 제도와 질서를 수립하고 건설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며 인력과 자재의 낭비를 막고 작업능률과 시공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87) 「조선대백과사전(1권)」, 533쪽.

88) 「조선대백과사전(1권)」, 533쪽.

89) 「조선대백과사전(1권)」, 533쪽.

90) 「조선대백과사전(1권)」, 533쪽.

(7) 건설시공의 감독

북한의 건설법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원을 두고 공정검사, 중간검사, 공학검사를 비롯한 시공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과 검사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북한 건설법 제34조)고 규정하고 있다.⁹¹⁾ 건설공사의 감독은 공사중에 시공이 끝난 공정에 대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공정의 시공에 들어가지 못한다.

(8) 준공검사 및 인도

건설물이 완공되면 건설물의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데 북한에서는 준공검사를 “완공된 건설물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중요공정이다”(건설법 제37조)라고 하여 준공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준공검사는 건설대상의 특성에 따라 부문별 또는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준공검사의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공주는 건설시공과 설비의 유부하·시운전을 마치면 건설주에게 건설물의 완공을 통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건설주는 설비의 부하·시운전과 준공검사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국가건설위원회 산하의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한다. 준공검사신청서를 접수받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 소속의 건축, 생산기술공정, 전기, 체신, 난방, 상하수도과 같은 전문부문의 전문가들로부터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하며, 준공검사위원회는 승인된 건설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건설물이 시공되었는가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동법 제39조, 제40조).

91) 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은 ‘건설감독원은 청부건설계약서와 설계문건의 범위안에서 건설주를 대신하여 대상건설을 감독하며 그에 대하여 건설주앞에 책임을 진다’(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 제36조)라고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감독은 검사원 또는 감독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건설주는 준공검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건설물을 인도받게 되는 데 인도결과를 건설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⁹²⁾ 건설물을 인도받은 건설주는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 제56조). 건설주는 완공된 건설물을 인도받은 후 10일 이내에 건물등록을 하여야 한다(같은 규정 제59조).

건설물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건설주와 시공주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대상설비의 품질보증기간은 대상설비제작자가 정한다. 품질보증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국가 건설위원회 산하의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수하거나 책임을 진다(같은 규정 제58조).

(9) 건물의 등록 및 관리

1) 건물등록

북한에서는 건물등록의 의미는 단순히 새로이 건설된 건물을 국가에 등록하는 것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건물을 국가의 고정재산으로 문서에 올리는 것 뿐 아니라, 경영전기간에 그 기술상태와 관리이용, 보수상태를 정상적으로 기록하는 일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건물등록은 현물상태등록과 기술상태등록으로 구분되는데, 현물상태 등록대상에는 설계와 시공 기관의 이름, 착공 및 준공일자, 건설비, 건물의 건평, 용적, 연건평, 높이, 층수, 세대수, 형식과 구조 등을 등록하고 건물의 사용년한, 보수주기 및 건축설비의 수량과 재질 등을 기록하게 된다. 반면, 기술상태등록에는 건물을 대보수한 내용, 마모상태와 지붕상태, 위생난방과 전기시설의 불비한 상태, 건물구조의 변동내용, 사용용도의 변동, 면적의 변동 등을 원인 및 내용에 따라 기록한다. 이를 위하여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건물에 대한 조사·기록을 실시하며 해당 건물 관리원과 건물관리부문의 기술자들이 순회점검하고 기술상태를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기록⁹³⁾하게 된다.

92) 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 제55조 그러나 반드시 준공검사 후에 건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의 일부대상이 완공되었거나 완공되기 전이라도 시공주와 협의 이용할 수 있다(같은 규정 제57조).

이러한 사항들을 기록한 건물등록대장은 건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기관이 건물을 인수 인계받을 때 건설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문건, 보수보강한 기술문건과 함께 보관, 관리한다. 건물관리기관은 이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기간과 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관리 및 보수방법 및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게 된다.

2) 건물관리 및 보수

북한에서의 건물관리는 건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문화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시설물 관리이외에도 주택의 경우 해당 국민에게 정확하게 배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주자 관리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물들의 보수 및 건물이용에 대한 감독 통제 등도 포함된다.

북한에서의 건물보수⁹³⁾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물이 물리적으로나 파손되거나 마모된 부분들을 보강하고 수리하며 개조하는 일로써,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된다. 소보수는 건물의 약한 파손과 마모 및 오염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수리하는 것이며, 중보수는 대보수 주기 사이에 건물의 부분적인 파손과 마모를 복구 또는 부분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보수는 건물을 전반적 부분에 걸쳐 복구하고 본래의 능력과 사명을 보존하면서 고쳐지으며 사회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새로운 요구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개조하는 것이다. 대보수의 종류에는 일반대보수(전면대보수), 선택대보수, 원상보수, 건물의 개조 등이 있다.

북한에서는 기존 건물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설정된 보수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북한의 문헌들은 건물보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건설부문에서는 질이 보장된 건설물을 넘겨주고 도시경영 부문에서는 건설물을 넘겨받은 후 보수주기를 정확히 하고 계획적으로 보수를 진행하는 것과 건물순회점검을 강화하고 건물의 실태를 잘 알며 파손된 부분을 제때에 질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93) 「조선대백과사전(1권)」, 515쪽.

94) 「조선대백과사전(1권)」, 516쪽.

IV. 건설예산과 건설비

1. 북한의 국가예산과 항목

(1) 북한의 국가 예산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예산은 사회적 부의 축적과 분배의 균형된 발전과 형평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역시 국민소득의 70%정도를 점하는 국가예산은 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보장하고 축적과 분배간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⁹⁵⁾ 북한에서의 국가예산은 “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중앙집중적으로 형성하고 분배하는 재정활동의 기본형태로써,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의 기본재정계획”⁹⁶⁾으로 정의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국가예산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국민생활 향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고 그의 계획적 발전과 축진을 위한 통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예산은 정부원의 심의를 거쳐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되고 그의 집행에 대한 결산이 또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된다.

북한의 국가예산체제는 중앙집권제 원칙에 기초하여 각급 주권기관체계에 상응하게 조직되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이루어 진다. 지방예산은 지방주권기관체계에 상응하게 도(직할시)종합예산, 도(직할시)예산, 시(구역), 군예산으로 구분된다. 시(구역), 군예산과 도(직할시)예산이 종합되어 도(직할시)종합예산을 이룬다. 반면, 중앙예산은 국가중앙기관들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화폐자금을 전국적 규모에서 형성하고 분배이용하는 형태이며 지방예산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 밑에 지방정권기관들이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용하는 형태이다.⁹⁷⁾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국가예산 중 중앙예산이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앙예산이 국가예산의 전체방향을 규정하며 국가운영에 필요한 자금 수요의 대부분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중앙예산에는 중앙소속기관, 기업소들이 납부하는 거래수입금,

95) 황의각, 「북한경제론」, 1993, 74-5쪽.

96) 「조선대백과사전(3권)」, 135쪽.

97) 「조선대백과사전(3권)」, 136-7쪽.

국가기업이익금 등이 기본적인 수입원천이며 중앙예산으로부터 중앙소속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실시된다. 또한 국가차원의 사회문화정책, 최고주권기관과 중앙국가관리 기관들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자금, 국방을 위한 자금도 중앙예산에서 지출된다. 북한의 문헌에 의하면 “경제, 문화 건설의 중요대상에 대한 자금공급을 중앙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은 선진기술을 기초로 나라의 생산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인민경제의 전반적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⁹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 IV-1>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구 분	대상기관	주요수입원천	주요지출대상
중 앙 예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적 국영기업소와 기관 ·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 기관, 기업소와 사회문화기관 · 사업상 특성을 가지는 사회안전, 사법, 검찰, 재판기관, 철도운수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집중적 순수득 (거래수입금) · 국영기업소의 국가 기업 이익금 · 지방예산으로부터의 이전금, 가격편차 수입, 국가재산 판매 수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 (기본건설, 유동자금등) ·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 (교육, 의료, 연금 등) · 군사비 · 중앙기관 관리비
지 방 예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규모의 기관 기업소 ·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기관·기업소와 사회문화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예산 대상기관·기업소의 거래수입금 · 협동단체이익금, 편의봉사료 · 중앙예산의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산업 및 농촌경리와 지방산업 건설 · 지방의 도시경영, 교육, 문화, 보건 부문 · 지방기관 관리비

자료 : 박완신(1996), 285쪽 참조

지방예산은 지방정권기관들이 중앙으로부터 부과된 정치, 경제, 문화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폐자원을 마련하고 이용하는 국가예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98) 『조선대백과사전(3권)』, 136쪽.

있다. 북한에서는 “지방예산은 국가가 지방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기 위한 중요한 수단”⁹⁹⁾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북한의 지방예산은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 밑에 지방예산제원칙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된다. 지방예산수입은 지방산업 및 기타 지방경제부문으로부터 들어오는 사회순소득과 기타 화폐자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지방산업 및 농촌경리, 지방상업, 지방의 도시경영, 교육, 문화, 보건부문에 사용된다. 이 지출은 지방차원에서 국가경제에 대한 지출,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 지방기관들의 유지비 지출 항목으로 이루어 진다. 지방예산에서는 또한 지출에 비한 수입초과액의 일부가 상위기관예산(군예산은 도종합예산, 도종합예산은 중앙예산)에 납부된다.

(2) 국가예산항목

북한에서는 국가예산항목을 통하여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세부적으로 구분한 과목분류로써, 국가예산계획화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예산구조와 수입지출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며 예산집행에 대한 계산과 통제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한다”¹⁰⁰⁾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예산항목은 경제적 징표와 관할별 징표에 의하여 구분한다. 먼저 경제적 징표에 의한 구분은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그 경제적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관할별 징표에 의한 구분은 그의 소속에 따라 구분한 것¹⁰¹⁾이다. 경제적 징표에 의한 구분은 예산자금운동의 경제적 내용을 밝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예산항목분류의 기초를 이룬다. 북한의 예산수입항목에는 거래수입금 수입, 국가기업이익금 수입, 감가상각금 수입, 협동단체이익금 수입, 국가재산 및 기타수입, 사회보험료 수입, 봉사료수입 등이 포함되며, 국가예산지출 항목에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 국가관리 및 국방에 대한 지출, 국가예산비에 대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건설예산은 경제적 내용에 따라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 및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항목에서 지출된다고 볼 수 있다.

건설예산은 기본건설과 관련하여 미리 계산되고 편성된 물자와 자금지출계획으로 설계예산과 실행예산으로 나누고 예산편성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건설예산서에 의하여 규정¹⁰²⁾된

99) 「조선대백과사전(3권)」, 137쪽.

100) 「조선대백과사전(3권)」, 137쪽.

101) 「조선대백과사전(3권)」, 137쪽.

102) 「조선대백과사전(1권)」, 536쪽.

다. 설계예산서는 비준된 설계도면과 국가적으로 재정 공포된 건설기준 및 규정에 기초하여 설계기관이 작성한 예산서로 국가적인 심의와 비준을 얻어야 하는 법적인 문건이며, 이를 통하여 건설물의 국정가격인 설계예산가격이 정해지며 현물과 자금계획이 구체적으로 계산된다. 이는 기본건설계획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며 기본건설자금공급의 기준으로 통계, 부기계산을 위한 필수적인 문건이다.

실행예산서는 비준된 설계문건과 건설자들의 사상의식 상태, 건설과학기술의 발전수준, 건설기업소의 기술장비수준, 현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시공기관이 작성하는 예산서로서, 기업관리 차원에서 독립채산제와 현물평가제를 강화하고 내부계획화를 윤희게 실현하기 위한 기초문건으로 이용된다.¹⁰³⁾

2. 북한의 기본건설 투자

북한의 기본건설투자는 “새로운 고정재산의 조성과 운영중 고정재산의 개건 및 확장을 위한 자금지출”¹⁰⁴⁾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건설투자는 사회주의적 부의 축적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북한의 기본건설 투자는 우리나라의 건설투자와는 전혀 상이한 개념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 기본건설이라는 용어가 경제건설과 유사한 추상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기본건설투자란 전 경제분야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기본건설투자는 생산적 기건설투자와 비생산적 기본건설투자로 구분되며, 부문별 구분에 따라 공업건설, 농업건설, 운수체신건설, 사회문화건설, 공공건설, 살림집건설 투자 등으로 나눈다. 또한, 건설형태에 따라서 신설, 개건, 확장, 복구 등으로 나누며 건설의 발주자의 소속에 따라 중앙건설, 위원회, 부건설, 지방건설, 자체건설 투자로 구분¹⁰⁵⁾하기도 한다.

기본건설투자는 건설조립작업액, 설비비, 비품비, 설계사업비, 기타건설비로 구성된다. 건설조립작업액은 기본건설에 필요한 자재, 부재, 인력의 소요량과 관련되며 설비비와 비품비는 건설물에 설치되는 설비와 비품의 소요량과 관련된 비용이다.

기본 건설투자의 규모와 방향은 해당 시기의 경제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건설투자계

103) 『경제사전(1권)』, 283쪽.

104) 『조선대백과사전(3권)』, 674-5쪽.

105) 『조선대백과사전(3권)』, 675쪽.

획에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북한이 기본건설투자의 분배에서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방향은 생산적건설의 우선적으로 추진과 비생산적건설의 적절히 배합이다. 이러한 기본건설투자분배에서는 생산력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며 기본건설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이 나타나도록 신설, 개건, 확장을 옹계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기본건설투자방향

기본건설투자 방향은 경제부문별 및 건설형태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부문별 투자는 공업, 농업, 운수 및 체신 등의 투자로 나눌 수 있다. 전후 시기의 경제부문별투자는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중공업과 직접 관련된 중공업 건설에 많은 투자를 실시하는 동시에 경공업 건설과 농업 건설에도 상당한 투자를 실시하였다.

건설형태별 투자는 신설, 복구, 개건, 확장으로 나눈다. 3개년경제계획시기에는 낡은 기업소들과 설비들을 복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그 기업소들을 새로운 기술을 토대하여 복구개건하며 일부 공장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기본건설투자를 분배하였다.

5개년경제계획기간에는 채 복구하지 못한 기업소들을 완전히 복구하면서 이미 있던 기업소들을 더욱 완비 개건 확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일부 기업소들의 신설을 이에 배합하는 방향으로 투자하였다. 7개년경제계획기간에는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과 개건확장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기본건설투자액이 결정되면 자금조달을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기본건설투자계획을 국가 전체적인 계획과 비교·검토하여 그 시행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며 기본건설의 수요와 자금원천을 비교 검토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축적과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인 기본건설자금원천이 규정되면 그것을 기본 투자자금수요와 비교하고 기본투자자금원천이 기본투자자금수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계획년도기본건설 투자규모를 확정한다.¹⁰⁶⁾

106) 「경제사전(1권)」, 283쪽.

(2) 기본건설투자액구성

북한에서의 기본건설투자액은 부문별 구성과 지출요소별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부문별 투자액 구성은 생산건설과 비생산건설 그리고 인민경제 각 부분별 투자액 등으로 구성¹⁰⁷⁾되는데 이는 경제 각부문에서의 고정재산의 확대재생산의 규모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생산적 건설투자액 구성은 공업건설(공업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모든 생산적 건물 및 건축물과 수송 및 통신시설, 기업소의 전용철도선로와 사무실, 창고, 공업용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의 건설), 농업건설(농업생산과 직접 관계되는 농목장, 농기계작업소, 관개 및 강하천건설과 조림, 식수 및 사방공사), 운수 및 체신건설¹⁰⁸⁾(철도, 항만, 도로, 교량과 전신 전화시설 등의 건설), 상업및사회급양건설(상점, 사회급양망 및 경영용창고, 양곡공급소창고 건설) 등의 투자액으로 구성된다.

비생산적 건설투자액 구성은 주택건설(주택, 합숙, 기숙사 건설), 교육문화기관건설(각급 학교, 유치원, 양성기관, 극장, 영화관, 구락부, 전람관), 과학연구기관건설(과학연구기관, 시험장, 기상수문관측기관), 보건기관건설(병원, 진료소, 방역소, 탁아소, 요양소), 공공건설(도시내의 상하수도 및 원림점설, 도시난방시설, 청사, 공원건설, 여관목욕탕, 이발소 등의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¹⁰⁹⁾된다.

두 번째로 요소별 구성은 개별적 지출요소별로 기본건설 투자액의 규모와 상호관계를 반영한다. 구성요소들을 보면 건설 및 조립작업액(건물 및 건축물의 건설작업으로부터 설비의 조립과 설치 및 건설구역안의 정리작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즉 건설자재비, 건설조립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노임, 건설기계 및 수송기계의 운임비와 간접비 등이 포함됨), 설비수입비(모든 동력설비, 송배전 및 체신설비와 동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기계 및 설비구입비), 비품구입비(건물의 신설 및 확장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비품들의 구입비), 기타기본건설비(건설노동자들의 이동작업비, 건설조건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제정된가급금, 건설부지의 취득비, 철거 및 피해보상비, 역측 및 종축, 종금의 구입비, 건설되는 기업소의 관리기관 유지비) 등으로 구성¹¹⁰⁾된다.

107) 「경제사전(1권)」, 283쪽.

108) 기업소내부의 운수수단과 통신시설 건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109) 「경제사전(1권)」, 283쪽.

110) 「경제사전(1권)」, 284쪽.

(3) 기본건설편차보상금

기본건설편차보상금은 기본건설에서 발생하는 설계예산기준가격과 현행가격사이의 차액을 국가가 보상하여주는 자금¹¹¹⁾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설계예산서는 일정한 시점의 기준가격으로 작성되며 시공은 현행가격에 의하여 진행된다. 따라서 자재비, 조립설비, 생활비, 요금, 부가금, 운임사이에는 가격 또는 요금의 변동으로 일정한 편차가 생긴다.

이때 편차는 설계예산기준가격에 대한 현행가격의 초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현행 가격에 대한 설계예산기준가격의 초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금공급은 설계예산기준가격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현행가격과의 편차액을 추가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편차보상금은 건설주가 시공주에게 보상해주어야 할 자금으로 건설주는 재정계획을 건설물의 세분대상별로 작성할 때 이와 함께 보상금도 책정하여야 한다.

3. 건설원가 및 건설비

(1) 건설원가

북한에서 건설원가는 “건설물의 시공 및 인도와 관련된 모든 지출의 화폐적 표현으로 건설기업소 경영활동의 질을 특징짓는 기본지표의 하나”¹¹²⁾로 규정한다. 이는 건설에 투입된 모든 요소의 지출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생산설비의 구입과 시공, 인도 등 건설기업소의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생산과 관리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을 종합적으로 특징짓는다. 표준적인 원가항목은 직접비(자재비, 기본노임, 건설기계운영비), 간접비(행정관리비 및 기타간접비) 등이 있다. 건설원가는 산출목적 및 계산방법에 따라 예산원가, 계획원가, 실적원가로 나눈다. 예산원가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건설대상의 규모 등을 정하고, 건설의 위치, 입지조건, 건설수행기간의 계절적 조건 및 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감안하여 일정한 시점의 기준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원가로 여기에 계획이윤을 합치면 해당 대상의 예산가격(견적가격)으로 된다. 기본건설계획작성과 건설물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며 기본건설자금공급에서의 계산과 보고는 이 가격으로 이루어 진다.

111) 「조선대백과사전(3권)」, 676쪽.

112) 「조선대백과사전(1권)」, 539쪽.

계획원가는 예산원가가 기준가격으로 산출되는 조건에서 기준년도 이후에 원가절감 요소들을 종합하여 원가저하과제로 정하고 이를 예산원가에서 제한 후 산출된 원가로 기업의 경영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기업의 경영목표이다.

실적원가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실제로 지출된 시공비에 의하여 산출된 원가이다. 실적원가가 계획원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원가초과저하액이 조성되며 그 반대일 경우 원가저하과제를 못한 것이 된다. 예산가격에 포함된 계획이윤과 원가저하과제액을 합하면 건설기업소의 이윤이 되며 원가계획이 초과 수행되면 초과이윤이 발생¹¹³⁾한다.

(2) 건설비

북한에서 건설비란 “일정한 고정재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사회적생산비”¹¹⁴⁾를 의미하며 설계단계에서는 예측되고 시공단계에서 확정된다. 설계단계에서 예측된 건설비인 예산가격은 해당 고정재산의 조성을 위하여 지출될 사회적 필요노동량을 돈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공단계에서는 건설비의 실적이 계산되며 실제적으로 지출된 건설비가 예산가격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건설비는 실제로는 건설조립공사비를 의미한다.

건설조립공사비는 건설조립공사를 수행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으로 건설공사비와 설비조립공사비 구성된다. 먼저 건설공사비는 건설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산업건물건설에서 건설공사비가 설비의 구입과 조립설치에 드는 비용보다 적고 주택(살림집), 공공건물과 도로, 다리 등과 같은 구조물과 시설물에서는 건설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건설공사비는 건설원가와 기업이윤으로 구성된다. 건설원가에는 직접비에 건설자재비, 기본생활비, 기계운영비가 속하고, 기업이윤은 건설공사에 얻어지는 사회순소득을 의미한다. 건설공사비는 설계단계와 공사가 끝난 후에 두차례에 걸쳐 계산하며 건설공사비에산액계산은 먼저 설계문건과 기타 기술경제적 자료들에 기초하여 직접비를 계산하고 간접비와 기업이윤은 직접비 또는 노력비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다.

두번째로 설비조립공사비는 대상설비 또는 경영설비들의 조립 및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며 도착역으로부터 건설현장까지의 설비운반비용, 설비의 조립설치작업비용, 조립된 설비의 시운전관련된 비용들이 포함된다. 즉, 설비를 도착역에서 넘겨받은 때로부터

113) 「경제사전(1권)」, 52쪽.

114) 「경제사전(1권)」, 41쪽.

해당설비가 조업을 개시하게 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해당 기업이윤으로 이루어 진다.¹¹⁵⁾ 설계예산편성에서 설비조립공사비의 규모는 설비조립작업의 세분작업공정별로 지출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산출한다.

이는 건적가격과 현행가격으로 계산되는 데 건적가격으로 계산된 것은 일정한 기간 사회총생산액에서 기본건설부분의 발전현황과 부문간의 상호연관을 설명하는데 이용되고, 현행 가격으로 계산된 것은 건설부문에서 새로 생산된 국민소득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¹¹⁶⁾

(3) 건설원가저하과제

설계예산원가와 비교하여 절약과제로 제시된 계획년도 건설원가저하규모이다. 설계예산 원가는 특정 시기를 기준년도로 정하고 기준년도의 확정된 기준가격에 따라 사회평균적 수준에서 계산된 원가이다. 따라서 설계예산원가는 기준년도로부터 일정한 시기가 지난 다음의 계획원가와 일정한 차이가 난다. 북한의 문헌들은 이러한 차이가 기준년도와 계획년도 사이에 발생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기술장비의 발전, 개선된 시공방법 등의 도입과 절약 제도의 강화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년도에는 설계예산원가를 원가계획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설계예산원가로부터 예산절감 규모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결정되는 절감규모가 건설원가저하과제¹¹⁷⁾이다.

건설원가저하과제는 기준년도로부터 계획년도에 이르는 사이에 예측된 원가저하조건을 고려한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계산되어 과제로 제시된다. 건설에서는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위치조건과 계절적 조건, 시공방법 등에 따라 원가수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매 건설대상별로 규정되어 있는 설계예산원가와 대비하여 저하과제를 세밀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원가저하과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체비저하과제로 선진기준을 적용하고 값싼 대용자재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며 선진기술과 앞선 시공방법도입에 의한 자체소비절약과 수송비절약예비들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생활비절약과제는 노동생산능력의 향상과 인력의 합리적 이용에 따르는 생활비의 상대적 절약예비들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115) 설비비와 조립·설치되지않는 설비의 구입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116) 「경제사전(1권)」, 40쪽.

117) 「조선대백과사전(1권)」, 539-40쪽.

건설기계운영비 저하과제는 기술장비의 사용비중을 높게하고 건설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기계운영을 위한 비용지출의 절약예비 등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간접비저하과제는 행정관리비를 줄이고 비생산적지출의 절약예비를 계산하여 결정한다.

(4) 기본건설공사인도수입

기본건설공사인도수입은 건설기업소가 각 시공단계별로 수행한 공사 가운데서 투자실적으로 평가된 대상에 대하여 얻은 회폐수입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건설공사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주기업소에게 처음부터 기본건설자금을 공급하지는 않는다.¹¹⁸⁾ 이를 자세히 보면 북한에서는 시공주들로 하여금 먼저 자체자금과 은행대부금을 원천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 등을 구입하여 건설물을 건설하게 한 다음 단계별 건설공사가 끝난 후 제반 기술적 조건과 품질기준에 합격했을 때 이를 투자실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이것이 바로 건설공사인도수입이다.

건설공사인도수입은 전기간으로부터의 공사대금이월액과 해당기간의 수행된 공사실적액을 합한 것에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는 공사실적액을 뺀 것이 된다.

건설공사인도수입은 건설조립작업과 관련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설비비, 비품비와 같은 기본건설투자액의 기타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지 않으며 건설조립공사의 수행량과 인도량, 조업개시기일의 준수여부, 설계예산가액 등의 영향을 받는다.

건설공사인도수입을 늘리기 위하여는 건설조립공사계획을 초과 수행하여 건설공사의 수행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공사의 인도량을 늘리고 조업개시일을 단축하는 것, 건설물의 품질 보장, 시공순위의 엄격한 준수, 수행된 공사를 즉시 인도하고 대금결제를 적기에 받아야 한다.

(5) 시공채권

북한에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결제할 때까지의 기간에 형성되는 건설주에 대한 건설사업소의 채권인 시공채권이 있는 데 이는 건설기업소의 유동자금기준회의 한 요

118) 다만, 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에는 선금금 지급규정이 있다(동 규정 제40조).

소이다.

건설기업소가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은 현행 기본건설자금공급절차에 따라 건설주가 확인한 공사대금계산서에 의해 은행이 매월에 두 번씩 결제하게 된다. 여기서 건설기업소가 은행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주의 확인을 받는 수속과 확인을 받은 후 은행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주의 확인을 받는 수속 등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기업소의 유동자금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기간에 해당한 공사대금을 시공채권으로 기준화하고 있다. 시공채권에 대한 유동자금의 보유기준액규모는 건설조립작업액 가운데서 건설예산에 예견된 이윤과 원가저하과제에 의한 절약액을 더 금액으로 산출된 1 일지출액에 시공채권의 보유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규정한다. 119)

4. 기본건설자금공급

북한의 기본건설자금의 공급은 기본건설자금을 국가예산에 포함된 기본건설투자계획지표에 근거한 한도범위안에서 중앙은행이 공급하게 된다.¹²⁰⁾ 중앙은행은 기본건설의 투자의 규모를 정한 자금공급한도표, 개별적대상 및 비용과 건설기간을 규정하는 기본건설대상목록, 종합예산서 또는 대상별예산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기본건설시초문전들의 정확한 이해와 건설현장에서 건설대상별로 시공에 대한 기술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금공급이 이루어 진다.

1964년 기본건설자금은행이 말아보던 종전의 기본건설자금공급체계가 폐지되고 중앙은행이 유동자금과 함께 기본건설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기본건설자금공급체계가 확립되었다. 이 체계는 중앙은행이 유동자금과 기본건설자금을 종합적으로 관리·공급함으로써 기업소, 기관들의 실정에 맞게 자금을 합리적으로 공급하고 기업소, 기관들로부터 하여금 공급된 자금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은행의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여 기업소관리 운영수준을 높이고 기본건설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119) 「경제사전(2권)」, 255쪽.

120) 「경제사전(1권)」, 282쪽.

V. 요약 및 결론

북한의 문헌들을 통해서 건설에 대한 정의,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건설공사의 수행 과정을 살펴보면, 산업적 관점에서의 북한의 건설부문은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과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나라와는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건설제도는 북한의 다른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정립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북한의 건설부문은 하나의 독립된 산업부문이라기 보다는 국가경제체제의 일부분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제도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간의 어려운 점이 있다. 북한의 많은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기본건설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의 건설의 의미는 단순한 구조물의 물리적인 건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북한의 건설제도 역시 이러한 건설의 개념에 맞게 북한의 건설부문이 국가경제체제하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의 건설제도들이 국가계획체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다양한 건설관련 제도와 굳이 비교하려고 한다면 매우 원시적이고 미분화된 제도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러하기도 하다. 그러나 계획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북한에서는 나름대로의 일관된 계획체제하에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무릇 모든 종합적 계획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비판들이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와 북한의 건설 관련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사정에 정통한 몇몇 귀순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건설사업의 수행 상황을 추정해 보면, 아무리 강력한 통제를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제도의 운영에는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건설기업소는 제도 운영의 허점을 보여주는데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건설제도는 북한의 건설산업부문의 기능과 목표, 그리고 수행방법 등을 북한의 계획체제 내에서 자리잡게 하고 있는 토지법, 건설법, 도시경영법 등 주요 법령과 좀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각종 규정들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과 규정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으로는 건설계획의 수립을 담당하는 국가 계획위원회와 지구계획위원회, 설계심사 및 건설시공 감독 등을 수행하는 국가건설위원회,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건설부와 건설총국, 그리고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각종 건설기업소들이 있다.

북한 건설제도의 특징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건설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법령들은 북한의 국가계획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건설제도는 건설산업의 발전보다는 국가경제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을 뿐더러, 물리적 건설행위와 함께 각종 산업생산시설들의 가동 및 유지관리,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건설관련 제도들은 제도적으로 아직 미분화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의 규정보다는 일반적인 지침이나 방향만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 법이나 건설법의 국토건설총계획 관련 규정들은 일반적인 계획의 종류와 기능 정도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방법 등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또한,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 관한 규정에서도 공기의 단축, 품질의 향상 등 일반적인 목표 달성에 관한 규정은 되어 있지만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규정은 찾아 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구득이 가능한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북한의 건설관련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의 건설부문 실정에 익숙한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북한 건설관련 제도의 현황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자료구득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북한건설관련제도 중 주요 법령들만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북한건설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상황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건설부문의 관계 등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건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건설관련 제도의 연구가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역할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북한건설제도의 정확한 이해는 물론 전혀 이질적인 제도적 환경에서 발전한 건설부문의 통합을 위하여 북한의 건설제도를 우리나라의 건설제도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